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I*

A Study on the Courtship Violence among Unmarried College Students I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조교수 김용미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Won Kwang University
Asst. Professor : Yongmi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요약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cidence and dynamics of premarital abuse among never-married college students. 21.3% of 497 male and femal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had experienced premarital violence at least once. Types of violence most frequently used were pushing or shoving, slapping, and throwing objects. It is interesting that both victims and aggressors interpret violent acts as expression of love most of all. Behavioral response to violent acts were to try to make up, to talk to the partner, and to apologize.

In general, the respondents had negative attitudes toward violence in premarital and marital relationships. Males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violence than females. This sex difference appeared to have some influence on marital abuse. It is suggested that counseling program and shelter for victims of severe violence need to be developed.

* 이 연구는 1995년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I. 서론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나 사회과학자나 일반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Gelles와 Straus(1979)는 폭력을 “타인을 신체적으로 다치게 하는 의도적 행동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행동”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부터 살인까지 포함된다. 이 정의는 신체적 폭력에 한정되며 성적이나 정서적 폭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 사용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다른 종류의 폭력과 구분해서 신체적 폭력이라 명기하고자 한다.

고대 로마시대의 남편들은 아내를 체벌하거나 이혼하거나 심지어 살해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누렸다(Gelles & Cornell, 1985). 미국에서도 아내를 체벌할 수 있는 권리가 계속 전해져 내려오다가 19세기 말 경에 와서야 몇몇의 주(states)에서 남편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령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이전까지 사회과학자들 사이에 만연했던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선택적 무관심”은 무엇보다도 가족 집단은 비폭력 집단이라는 무의식적 믿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Gelles & Straus, 1979).

그러나 1970년대를 고비로 가정 폭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기 시작했다. 1971년에는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특별호가 출간되어 가정 폭력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O'Brien, 1971), Steinmetz와 Straus(1974)가 가정 내 폭력의 사용에 대한 일반적 이론 분석을 시도한 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후속 연구들이 양산되었다. 이 문제에 관심이 집중하게 된 배경으로는 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여성해방운동과 아울러 몇몇 사회경제적 변화를 들 수 있다. 특히 구타당한 여성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과 월남전,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 학생운동, 도시의 범죄율 증가 등으로 일반 대중이 폭력에 대해 민감하게 눈을 뜨게 되었다.

가정 폭력에 대한 연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 단계에서 이성교제와 구애 단계에 있는 상대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관심은 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혼전 단계의 폭력은 가정 폭력의 주제 가운데 가장 새로운 영역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늘날 결혼 전 이성 교제 중인 젊은이들은 흔히 현실에 눈을 감고 낭만적 사랑에 빠져 상대방을 미화하고 장미빛 미래를 꿈꾸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혼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의 양상(pattern)이 결혼 후 부부관계에도 대부분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혼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습관(interaction habits)은 이것이 굳어져서 결혼 후에도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의 기본 틀을 이루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은 혼전 단계의 상호작용 과정 가운데서 부부로서의 역할에 서서히 예비적으로 사회화되어 간다는 것이다(Makepeace, 198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혼전 단계에서 이성 교제 상대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폭력 현상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혼전 폭력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 대중의 이해와 인식을 높임으로써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사적 상담 service program과 피신처 등과 같은 보호 시설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혼전 단계에서 이성교제 상대자 사이에 신체적 폭력의 사용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으며, 폭력의 유형과 이에 대한 해석, 폭력 사용에 대한 행동 및 감정적 반응, 폭력 사용이 교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폭력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미혼 대학생들 가운데 혼전 이성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1. 신체적 폭력의 경험 비율, 연령, 상대자 수, 교제의 단계 등 개략적 특징은 무엇인가?
2. 신체적 폭력의 유형과 빈도는 어떠한가?
3. 신체적 폭력의 사용에 대한 인지된 의미는 무엇인가?

4. 신체적 폭력 사용에 대한 행동 및 감정적 대응은 어떠한가?
5. 신체적 폭력 사용이 교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6. 혼전 및 부부 사이에서 신체적 폭력의 사용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가정 폭력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연구분야 가운데 전문가와 일반 대중의 관심을 비교적 적게 받은 부분이 혼전 및 구애 단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폭력에 대한 연구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면 혼전 단계의 폭력에 대한 연구의 시작은 1970년대 말에 시작하여 1981년에 처음 출간된 Makepeace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Makepeace의 첫번째 연구(1981)는 부부 사이의 폭력이 혼전의 구애 단계에서 이미 자리잡고 있음에 주목하여, 출생 가족(family of orientation)과 생성 가족(family of procreation)에서 각각 일어나는 폭력의 연결 고리가 바로 구애 단계의 폭력의 경험이라는데 착안하였다. 20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성 교제 상대자와의 사이에서 폭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21%였고 간접 경험자는 61.5%로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직·간접으로 혼전 폭력을 경험할 만큼 폭력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폭력은 주로 질투심, 음주 행동에 대한 이견(異見), 性的 거부에서 느끼는 분노심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집이나 기숙사, 자동차 안, 야외 등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결과 많은 수가(55%) 사이가 벌어졌으나 29%는 더욱 가까워졌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소수만이(5.1%) 폭력의 피해에 대해 경찰 등 법률집행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3년에 출간된 후속 연구에서 Makepeace는 혼전 폭력과 일상생활의 사건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남자대학생의 경우 건강과 무관한, 생활 상의 부정적인 변화가 있을때 (예를 들면

학사징계를 받았거나 실연했을때), 혼전 폭력의 발생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Conflict Tactics Scale(Straus,1979)의 7가지 유형의 폭력을 여대생에 비해 남자 대학생이 모두 빈도 높게 사용하고 있었다. CTS의 유형에는 물체던지기, 밀거나 잡아채기, 손바닥으로 때리기,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기, 두들겨 패기, 흉기로 위협하기, 흉기를 사용하는 7가지가 포함되는데 경미한 폭력에서 점차 극심한 정도의 폭력 순서로 분류할 수 있다.

Cate et al.(1982)의 연구는 35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Henton et al.(1983)의 연구는 644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이성 교제 단계의 폭력 경험을 조사했다. 대학생의 경우 Makepeace의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22.3%의 경험율을 보였고, 고교생의 경우에는 훨씬 낮은 12%의 경험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다니는 동안 이성 교제의 빈도와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혼전 폭력의 경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사용된 폭력의 형태는 밀거나 손바닥으로 때리기 등 가벼운 정도의 폭력이었고, 대부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혼전 및 부부 간의 폭력 사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폭력이 발생한 후에도 상당수의 교제 관계가 계속 유지되거나 가까워졌다고 답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의 폭력 사용이 더욱 빈번했으며, 폭력에 대한 태도 역시 남학생이 폭력 사용을 더욱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 폭력의 경험자 집단은 무경험자 집단에 비해 혼전 및 부부 사이의 폭력 사용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Cate et al., 1982; Henton et al., 1983).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혼전 폭력의 경험자들이 결혼 후 부부 사이의 폭력 사용에 대해서도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결혼 생활에 임하게 되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배우자 학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전북 지역에 위치해 있는 주요 사립 대학에 재학 중인 497명의 미혼 남녀 대학생이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21.3%인 106명이 이성 교제 상대자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유경험자의 반응 가운데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92부(18.5%)의 설문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크게 나누어서 2부분으로 구성된 설문지였다. 첫 부분은 나이, 성별, 종교, 부모님의 학력과 직업 등의 인구학적 배경을 다루고 있고, 혼전 단계와 부부사이에서 신체적 폭력의 사용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측정하고, 이성 교제 상대자와의 사이에서 7가지 종류의 신체적 폭력 행동을 가해자로서 또는 피해자로서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7가지 종류의 신체적 폭력의 유형은 1979년 Straus가 개발한 Conflict Tactics Scale이며 이후 수많은 선행 연구에서 널리 쓰여진 것이다(Cate et al., 1982; Henton et al., 1983; Makepeace, 1983). 설문지의 문항 가운데 혼전 단계와 부부 사이의 폭력 사용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내적 일관성이 .93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첫 부분은 전체 응답자(497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두번째 부분(Part A)은 신체적 폭력을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단 한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만 응답하게 하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106명(21.3%)만 이 부분에 응답하였고 이 가운데 분석에 사용된 것은 92부였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을때의 나이, 상대자 수, 교제 단계, 음주 여부, 관계의 계속 여부, 전체 횟수, 누가 시작하고 악화시켰는지, 어떤 행동으로 대응하고 어떤 느낌을 가졌으며 어떻게 해석했는지 등을 물었고 새로운 이성 친구를 찾는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손쉬운 일이며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대안(Alternatives)에 대한 평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두번째 부분에 포함된 문항들은 혼전 단계의 신체적 폭력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물음들이다.

3.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자료는 1995년 5월 초에 시작하여 약 3주일 간에 걸쳐 수집되었다. 사회과학대, 경영대, 농대, 공대, 사범대, 예체능 계열에 걸쳐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시간이 끝날 무렵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설문지를 배부하고 즉석에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주로 빈도 분석과 t-test를 사용하여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폭력의 개략적 특징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폭력 경험에 대한 개괄적 특징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대상자 92명 가운데 남자는 69명(75%), 여자는 23명(25%) 이었고 그들의 평균 연령은 22.3세였다. 학년 별로는 1학년이 17명(18.7%), 2학년이 9명(9.9%), 3학년이 48명(52.7%), 4학년이 17명(18.7%)로서 대학 신입생부터 졸업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종교를 살펴보면 기독교인이 22.7%(20명), 불교가 13.6%(12명), 천주교가 9.1%(8명)이었고 나머지 48명(54.5%)은 종교가 없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반수(46명, 50%)가 이성 교제 상대를 찾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답한 반면 13명(14.2%)은 쉽다고 답했으며 나머지는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이 혼전 단계에 이성 교제 상대자와의 사이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상대는 평균 1.7명이었고 처음 경험한 연령은 평균 18.6세였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나 상대자가 음주 상태였던 경우(19명, 21.6%)보다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상

〈표 1〉 연구 대상자의 특징과 폭력의 일반적 경험

		n ¹	% ²
성별	남자	69	75
	여자	23	25
학년	1년	17	18.7
	2년	9	9.9
	3년	48	52.7
	4년	17	18.7
종교	기독교	20	22.7
	불교	12	13.6
	천주교	8	9.1
	없음	48	54.5
교제 상대 찾기 쉬움	매우 쉽다	2	2.2
	쉽다	11	12.0
	그저 그렇다	33	35.9
	어렵다	32	34.8
	매우 어렵다	14	15.2
폭력시의 음주 상태	음주 상태	19	21.6
	전혀 아님	66	75
이성교제 관계의 단계	초기, 일상적 단계	32	38.1
	진지한 교제	46	54.8
	약혼 중	2	2.4
	모른다	2	2.4
전체 폭력 경험 횟수	1번	36	41.4
	2-3번	34	39.1
	4-5번	3	3.4
	6번 이상	12	13.8
폭력을 누가 시작 했는가	본인	44	50.6
	상대방	23	26.4
	둘다	20	23.0
폭력을 누가 악화 시켰는가	본인	26	41.3
	상대방	20	31.7
	둘다	17	27.0
폭력 사실을 누구에게 알렸는가	전혀 안 알림	31	36.0
	동성 친구	49	57.0
	이성 친구	5	5.8
	부모님	1	1.2

1. n=92. n < 92인 경우는 응답 가운데 무응답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임

2. n/92×100

태(66명, 75%)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난폭한 행동이 오고 갔을 당시 이성 교제 상대자와의 관계는 어떤 단계였는지 살펴보면 초기의, 일상적인 교제 단계가 38.1%(32명), 진지한 교제 단계가 54.8%(46명)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두 사람의 관계가 약혼 등과 같이 공식적인 단계에 이르기 전으로서 교제가 막 시작되었거나 가까와지면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전체 횟수는 1번(36명, 41.4%)과 2-3번(34명, 39.1%)이 가장 많았고 6번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도 13.8%(12명)이나 나왔다. 누가 난폭한 행동을 시작했는가에 대해 본인(44명, 50.6%), 상대방(23명, 26.4%), 두사람 모두(20명, 23%)의 순서로 답했다. 누가 이 상태를 더욱 가속화했는지에 대해서도 본인(26명, 41.3%), 상대방(20명, 31.7%), 두사람 모두(17명, 27%)의 순서로 답하고 있다. 이로써 난폭한 행동을 시작하고 이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본인의 역할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 교제 상대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난폭한 행동에 대해서 누구에게 알렸는지 물었을때 대부분의 경우에 동성의 친구에게 말하거나(49명, 57%)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31명, 36%) 답했다. 이에 비해 경찰이나 법을 집행기관에 알렸다고 답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여 혼자서 조용히 넘어가거나 가까운 동성의 친구에게 말하는 선에서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혼전 폭력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여주며, 이러한 대처양상이 가정 폭력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대로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신체적 폭력 사용의 유형과 빈도

혼전 단계에서 이성 교제 상대자와의 사이에서 각종 신체적 폭력이 사용된 실태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Conflict Tactics Scale에 포함된 7가지 종류의 폭력 가운데 실제로 칼이나 총과 같은 흉기를 사용

하는 방법을 제외한 6가지 종류의 신체적 폭력을 피해자로서 또는 가해자로서 단 한번이라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이 최소한 1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2〉 신체적 폭력의 유형과 빈도

폭력의 유형	피해 경험		가해 경험		합 계	
	n	% ¹	n	% ¹	n	% ¹
물체 던지기	26	28.3	29	31.5	55	59.8
밀기, 잡아채기	31	33.7	48	52.2	79	85.9
손바닥으로 때리기 발로차기	26	28.3	42	45.7	68	73.9
주먹으로 때리기	11	11.9	16	17.4	27	29.3
두들겨 패기	4	4.3	5	5.4	9	9.8
흉기로 위협	0	0	1	1.0	1	1.0
흉기의 사용	0	0	0	0	0	0
합 계(총인원)	98		141		238	

1. $n/92 \times 100$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폭력의 형태는 밀기, 잡아채기(피해자 31명, 가해자 48명, 전체의 85.9%), 손바닥으로 때리기(피해자 26명, 가해자 29명, 전체의 73.9%), 물체 던지기(피해자 26명, 가해자 29명, 전체의 59.8%)의 순서로서 이러한 종류는 응답자의 반수 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발로 차기, 주먹으로 때리기(피해자 11명, 가해자 16명, 전체의 29.3%), 두들겨 패기(피해자 4명, 가해자 5명, 전체의 9.8%)의 순서였고 흉기로 위협하기는 단 한명(1%)이 가해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이성 교제 단계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폭력의 유형은 극심한 정도의 폭력보다는 가벼운 정도의 밀기나 손바닥으로 때리기 등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의 보고는 총인원 98명으로서 응답자 1인당 평균 1.1번의 경험이 있었던데 비해, 가해 경험은 총인원 141명으로서 응답자 1명이 평균 1.5번 각종의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피해 경험보다 가해 경험이 많은 이유 중의 하

나는 이 연구에 포함된 응답자의 75%(69명)이 남자이고 25%(23명)만이 여자였던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폭력 사용과 성의 관계는 다른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뚜렷해진다. Makepeace (1981)의 연구에서 30.8%의 남자 대학생이 자신을 혼전 폭력의 피해자라고 인식한데 비해, 여대생의 91.7%가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p < .01$). Makepeace의 후속 연구(1983)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 대학생 응답자의 13.7%가 이성 교제 상대자에게 폭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데 비해, 여자 대학생은 9.3%만이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의 정도가 극심해질수록 성 차가 심해져서 남자 대학생이 여대생에 비해 폭력의 유형에 따라 2.5배에서 4.5배까지 더욱 많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Henton et al.의 연구(1983)에서는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상급학년 학생을 조사한 결과 가해 경험보다 피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극심한 형태의 폭력일수록 상대방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남자보다 여자의 수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62.8% vs. 37.2%).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이 연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혼전 단계에서 이성 교제 상대자에게 폭력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쪽은 남자임을 알 수 있다.

3. 신체적 폭력 사용에 대한 인지된 의미

응답자들은 피해자로서 또는 가해자로서 이성 교제 상대자와의 사이에서 난폭한 행동이 벌어졌을 때 그 행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표 3〉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행동에는 한가지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로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던 응답자들은 상대의 행동을 사랑과 애정의 표현(18명, 19.6%), 혼란의 표현(14명, 15.2%), 슬픔의 표현(10명, 10.9%)의 순서대로 해석하고 있었다. 가해자의 입장에 섰던 응답자들 역시 자신의 행위가 무엇보다도 사랑과 애정의 표현(31명, 33.7%)이었으며 당시 자신

은 매우 혼란스러웠고(12명, 13%) 또한 분노의 상태(10명, 10.9%)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표 3〉 신체적 폭력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해석

폭력의 해석	피해 경험		가해 경험		합 계	
	n	% ¹	n	% ¹	n	% ¹
사랑, 애정의 표현	18	19.6	31	33.7	49	53.3
증오, 미움의 표현	4	4.3	6	6.5	10	10.9
분노의 표현	5	5.4	10	10.9	15	16.3
혼란의 표현	14	15.2	12	13.0	26	28.3
두려움의 표현	2	2.2	3	3.3	5	5.4
슬픔의 표현	10	10.9	5	5.4	15	16.3
기타	3	3.3	2	2.2	5	5.4

1. n/92×100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폭력으로 표현되었다기 보다는 비록 상대를 때렸지만 미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역설이 성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가해자만의 변명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자 역시 그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낭만적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이 의견 충돌이나 갈등으로 인해 가끔씩 난폭한 행동을 주고 받지만 미움과 증오가 폭발하기 보다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애정이 보다 거친 방법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 교제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거친 행동을 관대하게 이해하며 상대의 단점도 미화해서 받아들이는 낭만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해석이 대조를 보이는 항목으로서 사랑, 분노, 슬픔의 3항목이 있다. 폭력의 사용이 실제로는 미움보다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가해자의 수는 피해자의 수보다 거의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31명 vs. 18명). 이러한 상황 아래서 가해자 자신이 분노한 상태였다고 지적한 수는 피해자 수의 2배에 이른 반면(10명 vs. 5명), 가해자 수의 2배에 달하는 많은 수의 피해자는 당시에 자신이 매우 슬픔을 느꼈다고 지적(10명 vs. 5명)한 점이 좋은 대조를 이룬다.

4. 폭력의 사용에 대한 행동 및 감정적 반응

이성 교제 단계에서 신체적 폭력이 사용되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각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응답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하나 이상의 반응을 보였을 경우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게 했다. 피해자의 위치에 섰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 했고 또한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하였다(각각 14명, 15.2%). 이어서 폭력이 벌어졌던 현장을 떠나거나(13명, 14.1%)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트렸던(11명, 11.9%)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경우 먼저 화해하기 위해 노력했고(28명, 30.4%)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상대에게 사과했으며(27명, 29.3%) 상대와 대화하거나(14명, 15.2%) 현장을 떠났다(13명, 14.1%)의 순서로 답했다.

〈표 4〉 폭력의 사용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응 반응

대응 행동	피해자		가해자		합 계	
	n	% ¹	n	% ¹	n	% ¹
맞서 싸웠다	9	9.8	10	10.9	19	20.7
울었다	11	11.9	2	2.2	13	14.1
침거했다	0	0	2	2.2	2	2.2
대화했다	14	15.2	4	4.3	18	19.6
현장을 떠났다	13	14.1	13	14.1	26	28.3
사과했다	5	5.4	27	29.3	32	34.8
화해하려 노력	14	15.2	28	30.4	42	45.7
기타	2	2.2	4	4.3	6	6.5

1. n/92×100

이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갈등이 일단 폭력으로 표출되었지만 이를 건설적, 생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상대방과 화해하려 노력하거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했다는 반응이 제일 많았다. 이어서 상대에게 사과하거나 현장을 떠났다는 반응도 상당수 있었다. 이밖에도 적극적으로 상대와 맞서 싸웠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이는 “힘에는 힘으로 맞선다”는 원

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해자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사과했다는 응답이 가해자에 비해 훨씬 많았고(27명 vs. 5명), 피해자의 경우는 울었다는 반응이 가해자에 비해 훨씬 많아서(11명 vs. 2명) 서로의 상반된 입장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표 5〉 폭력의 사용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감정적 대응

감정의 대응	피해자		가해자		합 계	
	n	% ¹	n	% ¹	n	% ¹
화가 났다	18	19.6	14	15.2	32	34.8
상처 받은 느낌	13	14.1	7	7.6	20	21.7
두려웠다	6	6.5	6	6.5	12	13.1
놀랐다	18	19.6	6	6.5	24	26.1
미안했다	7	7.6	47	51.1	54	58.7
기타	6	6.5	1	1.1	7	7.6

1. $n/92 \times 100$

폭력이 사용되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감정적 반응을 나타냈는지에 대한 답변이 〈표 5〉에 나타나 있다. 피해자들은 무엇보다도 놀랐고 화가 났으며(각각 18명, 19.6%) 상처받은 느낌이 었다(13명, 14.1%)고 답했다. 가해자의 경우 압도적으로 미안한 느낌을 가졌고(47명, 51.1%) 화가 났다고(14명, 15.2%) 답했다. 서로의 입장에서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미안했다”가 가장 두드러져서 가해자의 반수 이상이 미안한 느낌을 가진데 비해,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비교해 볼 때 놀랐거나(18명 vs. 6명) 상처받은 느낌(13명, vs. 7명)이었다고 답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다수의 가해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난 뒤 상대방에게 미안하게 느꼈다는 것은 이것이 그때 상황에 따라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이성 교제 단계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폭력은 미리 계획된 대로 일어나기 보다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Henton et al., 1983).

5. 신체적 폭력의 사용이 교제 관계에 미친 영향

이성 친구와의 사이에서 신체적 폭력이 사용되었을 때 교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응답이 〈표 6〉에 나와 있다. 당시의 이성 친구와의 교

〈표 6〉 신체적 폭력의 사용이 교제 관계에 미친 영향

		n	% ¹
교제 지속 여부	계속 중	42	45.65
	중단됨	43	46.74
	무응답	7	7.61
관계유지 관심여부	유지에 관심	60	65.22
	무관심	21	22.83
	무응답	11	11.96
관계상의 변화	개선됨	31	33.70
	악화됨	19	20.65
	변화없음	31	33.70
	무응답	11	11.96

1. $n/92 \times 100$

제 관계가 현재에도 계속 중인 경우와 중단된 경우가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다(42명 vs. 43명). 그리고 대다수(60명, 65.22%)의 응답자들이 폭력이 일어난 후에도 이성 친구와의 관계를 전과 다름없이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전에 비해 오히려 개선되었다고 답한 경우도 33.70%(31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폭력이 발생 후 상대자와의 관계 유지에 전혀 무관심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각각 21명(22.83%), 19명(20.6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혼전 단계에서는 이성 교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이 두 사람의 교제 관계를 반드시 악화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Henton et al.(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에도 교제를 계속 중인 경우와 중단된 경우를 구분해서 이들이 인지한 대안(Alternatives)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회교환이

론의 관점에서 폭력이 개입된 교제관계를 중단한 사람들은 교제를 계속 중인 사람들에 비해 더 나은 대안을 가졌는지 검증해 보았다. 대안으로서는 얼마나 손쉽게 새로운 상대를 찾을 수 있는지와 현재의 상대와 비교해서 새로운 상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매력적인 대안이 많음을 나타낸다. 교제를 중단한 집단(M=7.1, SD=1.9)은 계속 중인 집단(M=6.5, SD=2.7)에 비해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6. 혼전 및 부부간 폭력의 사용에 대한 태도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동(Slapping)은 혼전 이성 관계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폭력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유형의 폭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선행연구(Cate et al., 1982; Henton et al., 1983; Straus et al., 1980)에서도 이 항목을 사용하여 폭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있다. 혼전 단계에서 이성 교제상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불필요”하며(61명, 66.3%) “비정상적”이며(58명, 63%) “불쾌한” 일이라고(70명, 76.1%) 답했다.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상대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수가 “불필요”하며(65명, 72.2%) “비정상적”이며(63명, 69.2%) “불쾌한” 일이라고(75명, 82.4%) 답했다.

이상에서 볼 때 이성 교제 단계에서 상대에게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데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M=8.5), 부부 사이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M=7.4). 상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는 Conflict Tactics Scale의 7가지 유형 가운데 3번째 유형에 속하는데 이는 가벼운 정도의 폭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Henton et al. (1983)의 연구 Cate et al. (1982)의 연구에 포함된 고교 상급생과 대학생들은 혼전 단계 및 부부 사이에서 폭력을 사용하는데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표 7> 혼전 및 부부간 폭력에 대한 태도의 성별 비교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		t-값
	M	SD	M	SD	
혼전 폭력에 대한 태도 ¹	8.9	4.1	7.2	4.2	1.81
부부간 폭력에 대한 태도 ¹	7.9	4.2	5.8	3.4	2.10*
전체적 태도 ¹	16.8	7.8	12.5	6.7	2.35*

* p < .05 1.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를 나타낸다.

<표 7>에는 혼전 및 부부간 폭력 사용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태도가 비교되어 제시되어 있다. 부부관계와 전체적인 폭력 사용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면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 보다 폭력 사용을 용인하는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들의 실제 결혼 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아내보다 남편들이 부부간 폭력사용을 더욱 용인하는 태도로 결혼 생활에 임하게 되리라 추측된다.

V. 요약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미혼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성 교제 상대자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성 교제자 사이에서 사용되는 신체적 폭력은 상당히 만연되어 있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21.3%가 직접 폭력을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자 비율은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수치이다(Cate et al., 1982; Makepeace, 1981; 1983). 처음으로 폭력을 경험한 것은 평균 18.6세였고 폭력을 경험한 이성 교제 상대자의 수는 평균 1.7명이었다. 이성 친구와는 초기의 교제 단계 또는 진지한 교제 단계에 접어들면서 난폭한 행동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폭력은 밀기나 잡아

채기, 손바닥으로 때리기, 물체 던지기 등이었다. 이러한 종류는 CTS 가운데 가벼운 형태의 폭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경험자의 반수 이상이 이러한 종류의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셋째, 난폭한 행동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들은 상대방의 행동을 사랑과 애정의 표현, 혼란, 슬픔의 표현이었다고 해석한 반면,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자신이 혼란스럽고 화가 난 상태였다고 답했다. 폭력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이를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은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의 낭만적 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폭력이 사용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응 행동으로서 피해자들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화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가해자 역시 화해를 위한 노력과 사과를 했다고 답했다. 이로써 이성 친구와의 갈등이 거친 행동으로 표현되었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대화를 하거나 건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폭력의 사용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써, 놀라고 화가 났으며 상처받은 느낌이었다고 답했다. 가해자들은 무엇보다 미안한 마음이 앞섰으며 화도 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폭력이 사용됨으로써 교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교제가 계속 중인 경우와 중단된 경우가 거의 반반이었다. 사건 이후 교제 관계를 유지하고자 관심을 갖고 노력했으며 두 사람의 사이가 오히려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관계 유지에 무관심했고 사이가 악화되었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성 교제 상대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신체적 폭력은 반드시 두 사람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혼전 관계 및 부부 관계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필요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쾌한 일이라고 답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부부 사이의 폭력 사용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폭력 사용을 훨씬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혼전 관계에서는 물론 부부 사이의 폭력 사용에서도 여자에 비해 남자의 가해 빈도가 훨씬 높다는 많은 국내외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광일, 1988; 형사정책연구원, 1992; Bernard, Bernard, & Bernard, 1985; Gelles, 1976; Gelles & Cornell, 1985; Henton et al., 1983; Makepeace, 1983; Straus, 1976; Straus, Gelles, & Steinmetz, 1978).

이 연구는 국내외에서 연구가 부족했던 혼전 구애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사용에 대한 조사 연구로서 우리나라 미혼의 대학생들이 이성 교제 상대와의 사이에서 언제, 어떻게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개략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 이루어질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 이외의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 연령층의 직장인이나 대졸 연령층 이상의 미혼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을 대상으로 혼전 관계의 폭력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어떤 형태의 폭력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는 어떠한가 살펴보고, 폭력이 개입된 혼전 관계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얼마나 되며, 이러한 결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정 폭력의 양상, 비율 등은 어떠한가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때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수를 비슷하게 조정하면 폭력과 성 차의 관계를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응답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폭력의 종류는 CTS 상의 가벼운 종류의 폭력이었지만 극심한 종류의 폭력도 다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기, 두들겨 패기, 칼이나 기타 흉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극심한 폭력의 피해자들의 경우, 어떤 행동 및 감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인지된 해석은 어떠한가 폭력의 경험이 두 사람의 관계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가벼운 폭력의 경험 집단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극심한 폭력의 피해자들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상담을 포함한 Service Program을 개발하고 피신처(shelter)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김광일. (1983). 가정폭력. 서울: 탐구당.
- 2) 형사정책연구원. (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3) Bernard, J., Bernard, S.L., & Bernard, M.L. (1985), Courtship violence and sex-typing, Family Relations, 34, 573-576.
- 4) Cate, R.M., Henton, J.M., Koval, J., Christopher, F.S., & Lloyd, S. (1982). Premarital abus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3(1), 79-90.
- 5) Gelles, R.J.(1976). Abused wives; Why do they sta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659-668.
- 6) Gelles, R.J., & Cornell, C.P.(1985), Intimate violence in the families. Beverly Hills: SAGE.
- 7) Gelles, R.J., & Straus, M. A. (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Burr, Hill, Nye, &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1, New York: Free Press.
- 8) Henton, J., Cate, R., Koval, J., Lloyd, S., Christopher, S. (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3), 467-482.
- 9) Makepeace, J.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10) Makepeace, J. (1983), Life events stress and courtship violence, Family Relations, 32, 101-109.
- 11) O'Brien, J. E. (1971), Violence in divorce prone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692-698.
- 12) Steinmetz, S. K., & Straus, M. A.(eds.), (1974), Violence in the family, New York: Harper & Row.
- 13) Straus, M. A. (1976), Sexual inequality, cultural norms, and wife-beating, Victimology, 1(1), 54-76.
- 14) Straus, M. A., Gelles, R. J., & Steinmetz, S. K. (1978),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Doubleday/Anchor.
- 15) Straus, M. A., Gelles, R. J., & Steinmetz, S. K. (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Garden City, NY: Doubleday.